

##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 1. 전주 동향

##### 음식료

11월 다섯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1.0% 상승. 원/달러 환율은 1,120.8원으로 하락. 곡물가는 옥수수(+2.1% WoW), 소맥(+3.2% WoW), 대두(+1.6% WoW), 원당(+3.0% WoW) 기록. 옥수수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예탄을 생산량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며 유가 급락으로 약세를 보이던 옥수수 가격 상승 전환. 소맥은 부진한 주간 수출검역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의 대량의 소맥 판매 소식과 러시아산 소맥 수출량 감소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가격 전주 대비 3.2% 상승. 대두는 11/29일 G20 정상 회담에서의 미-중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 상승 견인. 그러나 11/30일 다시 시장의 회의론이 짙어지면서 대두 가격 상승을 제한해 전주 대비 1.6% 상승에 그침. 원당은 브라질 해일화 약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Unica의 11월 중순 기준 18/19 원당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268% 감소 소식이 가격 상승 견인. 중국 라이신 공급 타이트한 상황 지속. 기상 여건이 악화되며 라이신 원재료 가격 상승된 점이 주요 원인. 단기간 가격 강세 지속되나 향후 기상 여건 개선되며 안정화 전망. Fufeng, Dongxiao 출하 예정. 단백질 비중 축소 규정 11/1일부터 시행. 메티오닌은 중국 국내 제조업체들의 공급 증가로 단기간 약세 전망. 11월 CJ제일제당 중국 시장 내 공급 증가, 12월 Evonik 공급 감소 예상. 메티오닌의 수출 세금 환급률 13% → 16%로 인상 소식은 중국 내 제조업체 수출 의지를 제고시킴. 다만 10월 메티오닌 수입량 전달 대비 5% 증가, 수출은 전달 대비 53% 감소한 실적. 쓰레오닌은 일부 제조업체가 라이신과 함께 판매 중. Yanfeng과 Dongxiaoxin은 11 월 중순 쓰레오닌 공급 완화에 주의를 하며 라이신 생산. 트립토판은 단기간 제조업체 생산 캐파 증가 예상. 환경 보호 규제로 중단했던 매화 Tongliao 공장, 추가된 트립토판 생산 물량 중 일부 출하. 국내 이벤트는 1. 신세계푸드, 519억원 투자해 오산2공장 건설 중. 19년 상반기 공장 가동시, 식품제조 생산능력 최소 1,000억원 이상 증가 예상. 2. 전자담배,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모기업인 알트리아, 급성장해온 전자담배 스타트업 올이올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 진행 중. 3. 대산조조, 대산 소주 (16.9 L, 360ml 제품) 캐나다에 수출. 물량은 2.4만병으로 향후 점차 늘릴 계획. 4. 오뚜기, 오뚜기아메리카 전국 판매업체에 '진라면' 리콜. FDA에 따르면 달걀 성분 표기 누락이 원인. 5. CJ제일제당, '비비고 밥' 출시 3년 3개월 만에 18.10월 누계 매출 기준 1천억원 달성. 18년 매출 500억원 목표.

#### 2. 급주 전망

**음식료 섹터 의견 Overweight 유지, 19년 음식료 영업이익 전년비 12.6% 성장하며 KOSPI 영업이익 전년비 1.0% 감소 대비 우수한 상대 성과 예상. 18년 영업이익 5.6% 증가 대비 개선, CJ제일제당, 오리온, KT&G 대형주 BIG3가 주도하는 실적 성장**

전체 식품 시장의 Q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카테고리별 차별화 지속될 전망. B2C 시장의 카테고리별 비중 변화, HMR 12년 4.1%에서 18E 6.6%로 확대. 동기간 매출액은 123.6% 성장. 18년 상반기 22~24% 성장 지속 중. 육가공 시장은 동기간 7.7%에서 8.8%로 확대. 3~4% 소폭 성장 중. 비중 정체인 제과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 품목은 비중 축소세. 유제품, 음료, 소제, 참치캔, 장류, 조미료 등

식품시장 전체는 98년 이전 연평균 8.1% 성장, 98년 이후는 연평균 4.8% 기록하며 성장을 둔화. 최근 3개년 추이는 15년 +3.0%, 16년 +2.3% 17년 +2.1%로 둔화세. 가격인상의 경우 전체시장 성장의+2~3% 요인으로 판단. 내수 전체의 Q 성장 흐름은 정체 예상. 음식료 가격인상 사례 수는 16년 27개, 17년 24개, 18년 33개로 재차 확대. 국제 곡물 가격의 경우 원당을 제외하고 3~4년간 하향 안정 흐름 지속됐지만 일부 품목은 물가 상승, 장기간 가격 인상 부재,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 단행. 원가 부담 부재로 19년 가격 인상 사례 수는 재차 감소 예상

CJ제일제당: 한국/미국 HMR 매출 성장으로 19년 실적 성장을 주도할 BIG1: CJ제일제당 HMR 매출액 18E 3,500억원 달성 예상. 18년 기준 전년비 45.7% 성장. 미국 비비고 만두는 코스트코 만두 카테고리 내 1위를 기록하며 호조. 2018년 2,000억원 매출액 달성 예상되며 쉬완스 인수 성공으로 19~20년 재발 확대 예상. 오리온: 회복세 판단의 임계치를 돌파. 중국사업 추가 회복이 기대되는 BIG2: 월 단위로 개선되고 있는 중국 매출액 회복에 주목할 시점. 2Q18 투자성격의 비용이 집행되며 매출 성장의 기반을 마련. 2Q18 출시한 신제품의 3Q18 임점 확대, 본격적인 매출 기여는 4Q18로 예상. KT&G: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다. 19년 전 사업부 성장이 예상되는 BIG3: 11월(1~10일 누계 기준) 해외담배 수출은 2분기 수준을 회복. 담배 재고 보유 기간 감안 시 4Q18, 1Q19 재고보충 진행될 전망. 해외담배 기저효과, 전자담배 마진개선, 부동산 분양 이익 반영, 홍삼 매출 호조 지속 등 19년은 전 사업부의 실적 성장을 기대

####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 관심종목

##### 매일유업 (267980)

3Q18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동일 기준 1~2% 성장세, 백색시유, 수출분유, 커피음료, 상하목장 등 매출 성장 주도. 매출 성장과 백색시유의 수익성 개선, 전년비 마케팅비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도 매출 흐름과 유사한 성장 예상. 시장 컨센 220억원대 부합 예상. 가격 인상은 백색시유 1위 서울유유, 2위 남양유업이 발표를 완료, 검토중인 단계로 판단. 백색시유 매출비중 30% 차지하는 B2B 채널의 매출 성장흐름 지속. 백색시유 전체적으로 낮은 한 자리 수 매출 성장 예상. 수익성 측면에서 1Q18-3Q18 QoQ 적자폭 축소는 지속 중. 발효유는 3Q18는 프로모션 효과로 매출액은 5% 이상 성장세. 커피음료 3Q18 매출액 5~6% 성장, 폭염과 경쟁심화가 맞물리는 환경에서 무리한 판촉 경쟁은 지양했음. 국내 분유 매출액 감소폭 축소 중인 점 긍정적. 수출분유 1Q18 70억원, 2Q18 110억원 달성, 3Q18 120억원 예상되며 전기비 증가세 유지. 18년 400억원 달성 가능성은 높은 상황

##### 동원산업 (006040)

4Q18수산부문 어획량 회복 영향으로 부진했던 3분기 실적 대비 개선 예상. 다만 비우호적인 어가 환경은 우려 요인. 유통부문은 스타키스트의 소송관련 충당금이 총 3천만원 추가. 전년 기말 기준 충당금 4천만원 감안하면 총 7천만원 예상. 물류부문은 전년 수준 유지 예상. 23년 수익 보전 계약 만료에 대비해 매출 확대 계획 지속. 수산부문은 3Q18 어획량 3.7만톤으로 상반기 평균 어획량 5만톤 대비 매우 저조했으나, 10월 1.86만톤 11월 1.9만톤 기록하며 양호한 개선세 유지 중. 평균 어가는 7월 1,460톤 → 8월 1470톤 → 9월 1,670톤으로 개선됐으나, 10월 1,660톤 → 11월 어가 1,480톤로 하락하며 4분기 어가 환경은 다소 불리해짐. 유통부문은 스타키스트 올해 3분기 실적 전년 기고 부담 존재. 물류부문은 동부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실적 전년 수준 유지 예상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2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2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